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5



INDEX

A. 조사개요 3

B. 조사결과 요약 4

C. 조사결과 상세

1. 창업자 6

2. 대기업 재직자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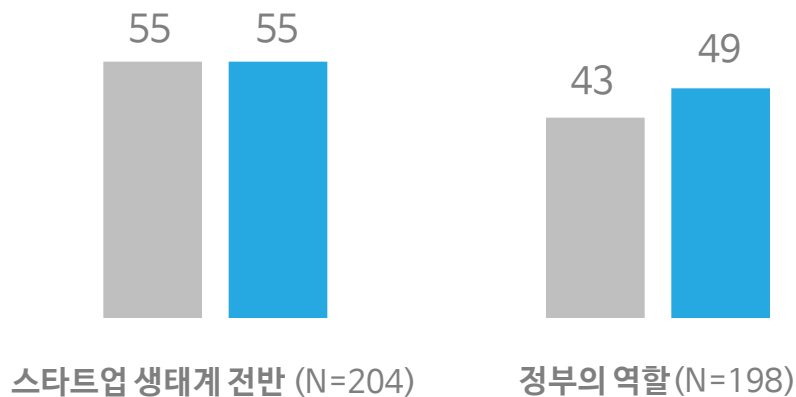
3.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

A. 조사개요

조사제목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5
조사목적	정보기술/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생태계 참여자의 인식과 현실을 파악
조사대상	<p>1) 창업자 20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정보기술, 지식서비스 - 대상: 창업자/공동창업자 (대표/임원/부장급 이상) - 연차: 창업 1년 이내 39명, 1년 ~ 3년 이내 58명, 3년 이상 107명 <p>2) 대기업 재직자 8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10대 그룹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포스코) - 대상: 사원 ~ 임원 - 연차: 재직 3년 이내 200명, 3년 ~ 7년 이내 300명, 7년 이상 300명 <p>3) 대학교 졸업 예정자 200명</p>
조사기간	2015년 10월 20일 – 10월 26일

B. 조사결과 요약

■ 2014
■ 2015



진출하고 싶은 해외 국가 (n=89)

	2014	2015
1위	미국	중국, 일본 외 동남아
2위	중국	미국
3위	중국, 일본 외 동남아	중국

활용/투자받고 싶은 기관 (N=204)

	입주/활용	초기 투자유치	VC 투자유치
1위	구글 캠퍼스 서울	더벤처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2위	SKP 상생혁신센터	본엔젤스 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3위	본투글로벌	프라이머	KTBNetwork

대표적인 스타트업 (N=800, 200)

	10대 그룹 재직자	대학교 졸업 예정자
1위	쿠팡	쿠팡
2위	배달의민족	쏘카
3위	우버	배달의민족

B. 조사결과 요약

창업자의 생각

-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작년과 동일한 55점이며, 초기 기업일수록 긍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뚜렷함. 분위기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꼽혔고, 내년에 보다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부정적 견해보다 두 배 많았음.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전체 분위기를 하회하는 49점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년 대비 14% 오르며 그 갭은 줄어들고 있음.
- 창업 후 겪은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과제로는 '네트워킹 및 구인'이 꼽혔는데 스타트업 수의 절대적 증가로 인한 인재 경쟁 격화가 그 이유로 추정됨. 창업자들이 꼽은 성공의 세 요소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사업기획과 제품개발', 그리고 '자금조달 능력'이며, 이들이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상위 세 개 채널은 모두 뉴 미디어로 드러나, 신문이나 TV와 같은 전통 매체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지속해서 낮아지는 현상이 재차 확인됨.
- 창업자의 43.6%가 해외 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이 관측됐음.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삼성이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느끼며,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여전히 기업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 창업지원센터 비보조 인지도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청'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입주 선호도에 있어서는 '구글 캠퍼스 서울'이 개소한 지 반년이 채 되기 전에 선두로 올라갔음. 초기투자회사 비보조 인지도와 투자유치 선호도는 지난해에 이어 '본엔젤스'와 '더벤처스'가 각각 자리를 지켰으며, 벤처캐피탈의 비보조 인지도와 투자유치 선호도는 모두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해를 이어 두 영역 모두 선두를 차지함.

대기업 재직자의 생각

- 대기업 재직자 중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집단은 작년에 비해 소폭 오른 43.3% (Y/Y +3.3%)이며, 세 명 중 한 명이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들이 꼽은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생각

-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23.5%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편이라고 조사됐으며,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27.6%로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을 그 이유로 꼽았음. 대학교 졸업 예정자가 꼽은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쿠팡'과 '쏘카'.

조사결과 (1) 창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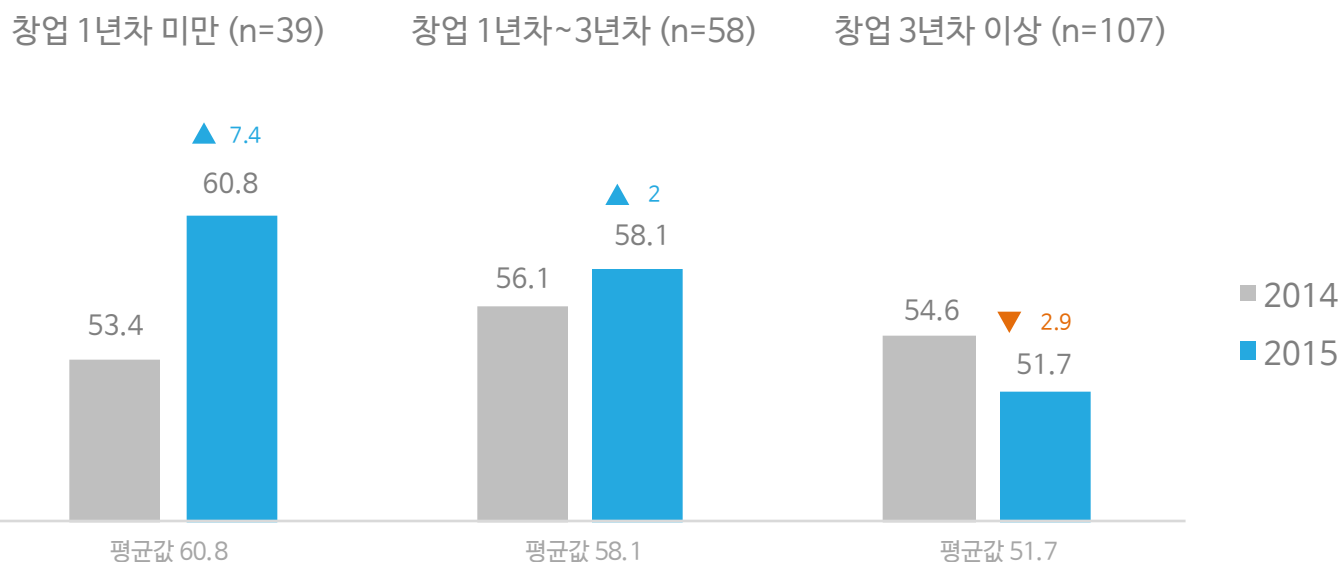


- 규모: 총 204명
- 산업: 정보기술, 지식서비스
- 대상: 창업자/공동창업자 (대표/임원/부장급 이상)
- 연차: 창업 1년 이내 39명, 1년 ~ 3년 이내 58명, 3년 이상 107명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는 작년과 동일한 55점이며 초기 기업일수록 긍정적

전체 평균은 54.9점이고 연차 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창업 1년 미만 구간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고(60.8, Y/Y +7.4) 3년차 이상에서 가장 낮게(51.7, Y/Y -2.9) 나타났습니다. 작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창업 후 연차가 높아질수록 더 낮은 점수를 준 경향이 뚜렷하고, 이는 여러 지원정책 및 인프라 개선이 초기 기업에 집중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입니까?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작년에 이어 생태계 분위기에 가장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전년 대비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31%)은 전년과 동일했으며, 반대로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소폭 감소한 수준(25%, Y/Y -3%)을 기록했습니다.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으로 느낀 이유 (n=54)	부정적으로 느낀 이유 (n=48)
1위	사회적 인식 개선	정부의 인위적 정책 실패
2위	창업 기업인 역량 강화	창업 기업인 역량 미비
3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지원	벤처캐피탈의 미온적인 지원

Q.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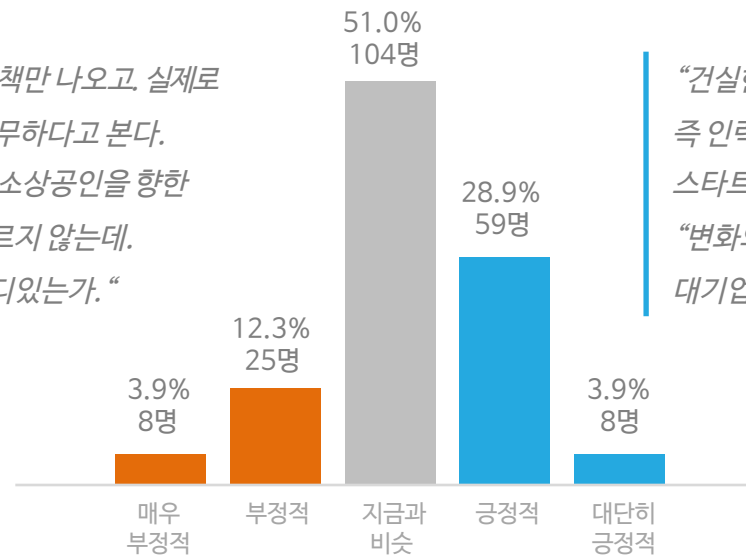
Q. 긍정/부정적으로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요.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올해보다 내년에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반대의견의 2배

긍정을 예상하는 집단(32.8%, Y/Y +1.1%)에서는 스타트업 성공/투자회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사회적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집단(16.2%, Y/Y +3%)의 근거로는 대기업 위주의 사회 분위기와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경제악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정책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미봉책으로만 끝나는 한시적인 대책만 나오고, 실제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본다. 대기업규제를 풀어주는 건. 벤처나 소상공인을 향한 공격규제를 풀어주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인이 대체 어디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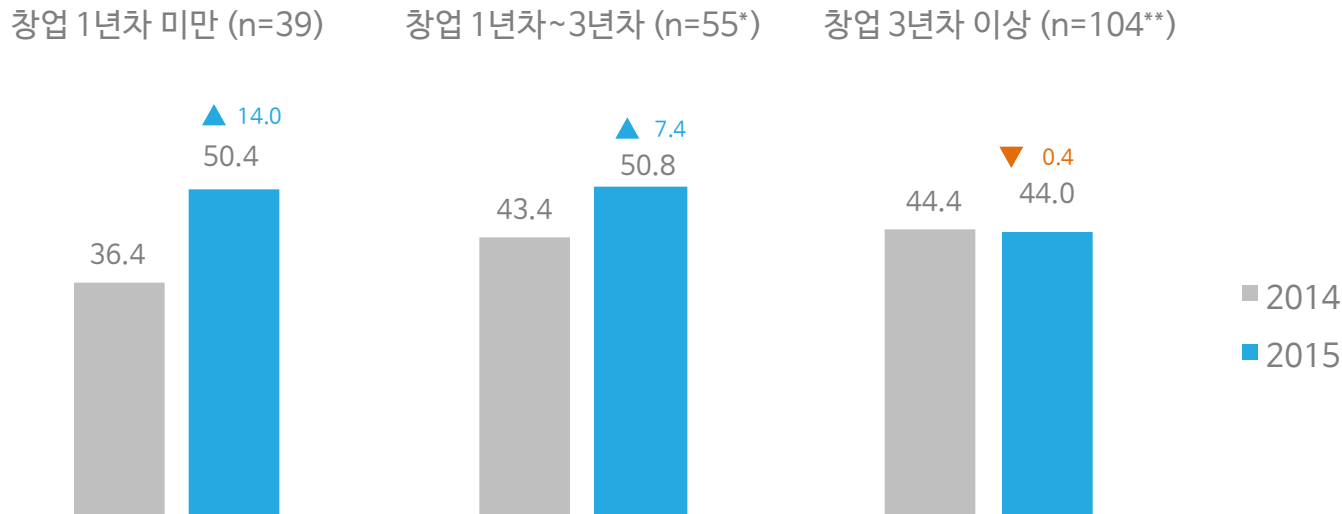
“건실한 스타트업의 성공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선순환, 즉 인력유입, 자금유입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다른 스타트업의 성공을 촉발할 것 같음”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이러한 시장에서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 유리”

- Q. 앞으로 일년 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거라 생각하십니까?
Q. 긍정/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49점 (Y/Y +6점)

스타트업 전반 분위기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뚜렷했고, 특히 창업 1년차 미만의 경우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한 수치(51.6점, Y/Y +15.22점)를 기록했습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초기 기업이 입주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가장 도움이 된 정부 정책에 대한 답변의 경우, 3년차 미만은 인건비보조(소득세 감면 등)를 3년차 이상은 초기자금 직접투자를 꼽았습니다.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미응답자 3명

Q.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미응답자 3명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창업자들은 여전히 기반자금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음

창업자들은 기반자금 확보, 투자 활성화 > 규제완화 > 우수인력 확보가 스타트업 생태계발전의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조사와 동일한 순서로 일년 사이 큰 변화가 없는 항목입니다.

창업자 (n=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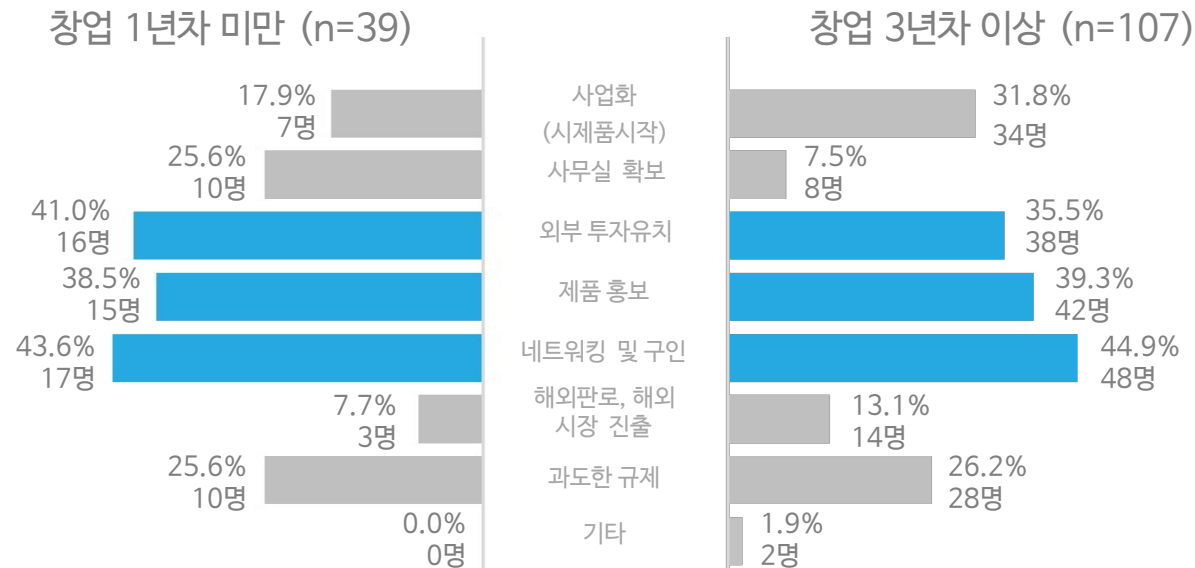
1위	기반자금 확보 / 투자 활성화 (56.9%, 116명)	4위	창업기업인 역량강화 (21.6%, 44명)
2위	규제완화(온라인상거래 법령 등) (31.9%, 65명)	5위	사회적 인식 개선 (17.6%, 36명)
3위	우수인력 확보 (22.1%, 45명)	6위	판로개척 (16.7%, 34명)

Q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하는 점을 두 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스타트업이 크게 늘어나며 네트워킹 및 구인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올라

창업자는 3년차까지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을 외부 투자유치와 네트워킹 및 구인으로 꼽았습지만, 3년차 이상인 경우도 네트워킹 및 구인을 선택했고 제품홍보 또한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3년차 이후에 제품홍보가 가장 어려운 것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고민으로 보이고, 구인과 네트워킹은 연차와 관계없이 항상 어려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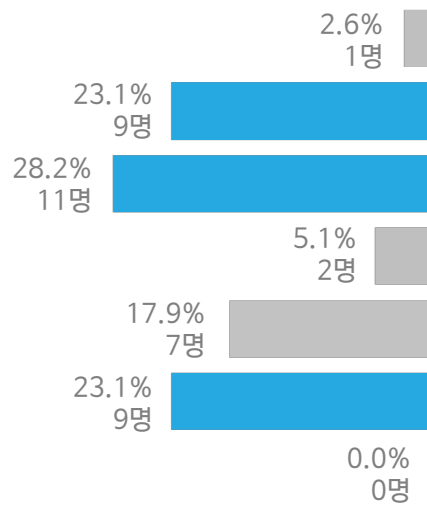
Q. 창업 후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을 두 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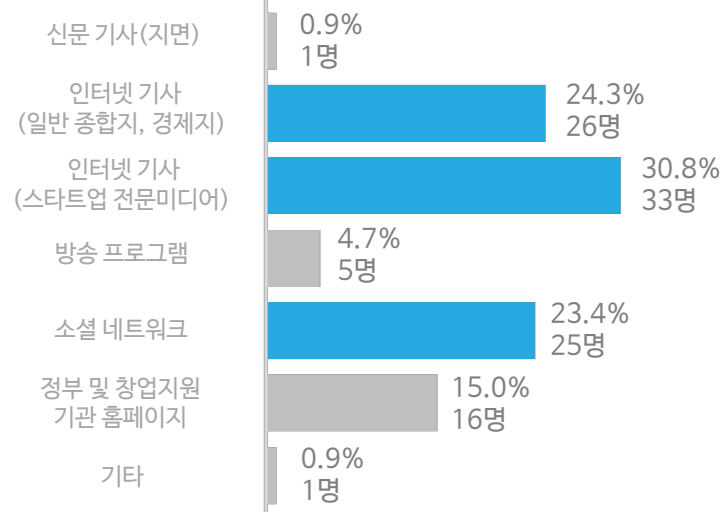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상위 세 개 채널은 모두 뉴 미디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창업 시기와 무관하게 전통적인 매체(신문기사 및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획득 비중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매체가 주된 정보 획득채널이라는 응답은 7%에 불과(6.9%, Y/Y -0.5%)했고,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는 전년에 이어 1위(30.9%, Y/Y +1%) 채널로 선정되었습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9)



창업 3년차 이상 (n=107)



Q. 창업 및 스타트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채널은 무엇입니까?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채널 순으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창업 성공의 세 요소는 전문지식, 사업기획과 제품개발, 그리고 자금조달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연차와 무관하게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창업 성공의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꼽혔으나, 연차에 따라 사업기획과 제품개발, 자금조달 능력, 그리고 영업 및 외부 네트워킹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상이했습니다. 특히 1년차 이하의 초기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동률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힌 것이 특징입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9, 1순위)	창업 1-3년차 (n=58, 1순위)	창업 3년차 이상 (n=107, 1순위)
1위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29.3%, 17명)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28.0%, 30명)
2위	자금조달 능력 (20.5%, 8명)	사업기획 및 제품개발 (22.4%, 13명)	사업기획 및 제품개발 (22.4%, 24명)
3위	영업 및 외부 네트워킹 (17.9%, 7명)	자금조달 능력 (15.5% 9명)	자금조달 능력 (20.6%, 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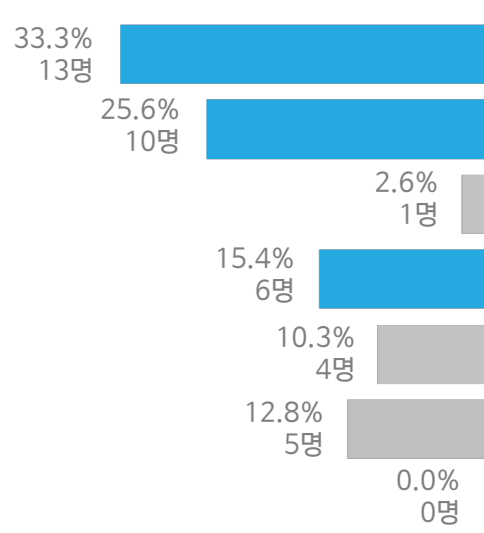
Q.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창업기업인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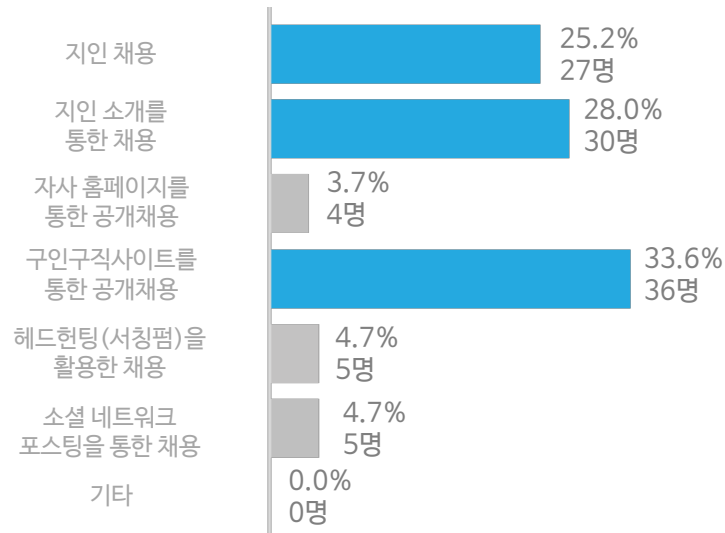
연차가 쌓일수록 지인 채용 중심에서 구인구직 사이트 활용도가 높아짐

창업 후 1년차 미만은 지인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33.3%)이라 응답했고, 3년차 이상부터는 구인구직 사이트 활용도가 가장 높고(33.6%) 지인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25.2%)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9, 1순위)



창업 3년차 이상 (n=107,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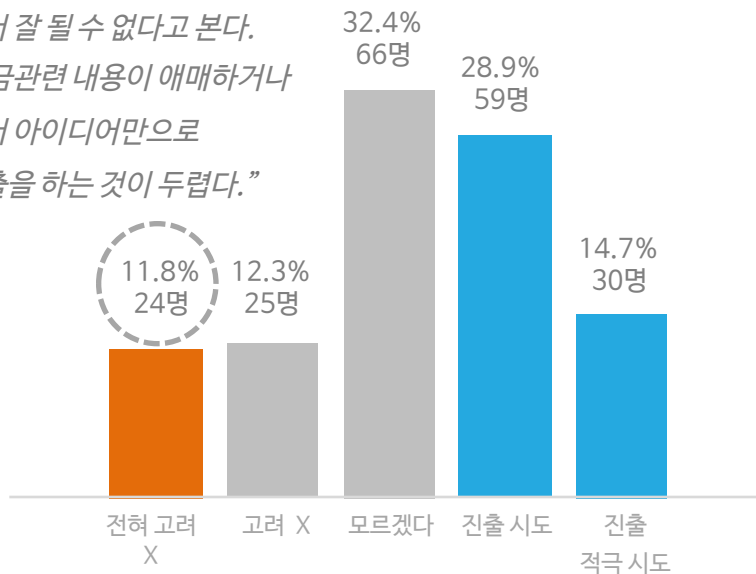
Q. 창업 후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재채용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2개 골라주십시오.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절반 가까이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중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

작년에 이어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43.6%)한 가운데, 진출을 고려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작년의 경우 3위에 머물렀던 동남아시아가 1위(30.3%, Y/Y +12.6%)로 상승했고,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절반 가까이 감소(6.7%, Y/Y -13.9%)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내에서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해외에서 잘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세금관련 내용이 애매하거나
복잡해서 아이디어만으로
해외진출을 하는 것이 두렵다.”



진출 선호 국가 (n=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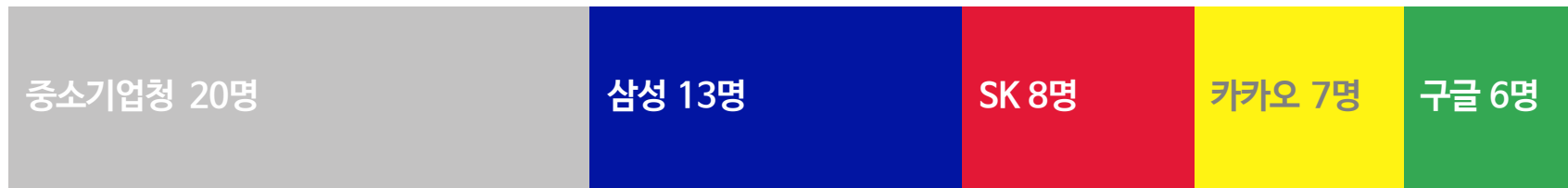
	2014	2015
1위	미국	중국, 일본 외 동남아
2위	중국	미국
3위	중국, 일본 외 동남아	중국

Q. 현재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지역/국가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 지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중인 지역을 한 곳 선택해주시요.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청과 삼성이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느낌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나 기관으로 중소기업청(20명), 삼성(13명), SK(8명), 카카오(7명), 그리고 구글(6명)이 꼽혔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카카오의 약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해석에 있어 작년 조사에서는 ‘기업’에 한정해 질의했고 올 해 부터 ‘기관’을 포함해 질문한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Q. 국내에서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 혹은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여전히 기업가치와 투자금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창업 후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의 산정가치 (Valuation) 와 투자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기업일수록 투자회사의 평판이나 투자회사 담당자와 의핏(fit)을 중시하는 경향이 일부 관측됐습니다.

	창업 1년차 미만 (n=39, 1순위)	창업 1-3년차 (n=58, 1순위)	창업 3년차 이상 (n=107, 1순위)
1위	투자받을 금액 (30.8%, 12명)	창업기업의 가치 (34.5%, 20명)	창업기업의 가치 (45.8%, 49명)
2위	창업기업의 가치 (23.1%, 9명)	투자회사 담당자와의 핏 (Fit) (19.0%, 11명)	투자받을 금액 (23.4%, 25명)
3위	투자회사의 평판, 자금 이외의 지원(멘토링, 구인 등) (17.9%, 7명)	투자받을 금액 (17.2%, 10명)	자금 이외의 지원(멘토링, 구인 등) (12.1%, 13명)

Q. 투자를 유치할 때 벤처 캐피탈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최대 2가지 골라주십시오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창업지원센터 비보조 인지도*는 중소기업청, 입주 선호도는 구글 캠퍼스 서울

비보조 인지도 : 중소기업청 > 디캠프 >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보조 인지도 : 구글 캠퍼스 서울 > 상생혁신센터(SK플래닛) > 디캠프

입주/활용 선호도 : 구글 캠퍼스 서울 > 상생혁신센터(SK플래닛) > 본투글로벌(미래창조과학부)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N=204)	입주/활용 선호도 (N=204, 1순위)
1위	중소기업청	구글 캠퍼스 서울	구글 캠퍼스 서울 (30.9%, 63명)
2위	디캠프	상생혁신센터(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SK플래닛) (11.8%, 24명)
3위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디캠프	본투글로벌(미래창조과학부) (9.3%, 19명)

Q. 창업지원센터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의 이름을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Q. 다음 중 가장 입주하고 싶은 창업지원센터를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비보조 인지도 - 보기제시 없이 주관식으로 응답

** 보조 인지도 - 객관식 보기 제시 후 중복선택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초기투자회사 비보조 인지도*는 본엔젤스, 투자유치 선호도는 더벤처스

비보조 인지도 : 본엔젤스 파트너스 > 더벤처스 > 프라이머

보조 인지도 : 더벤처스 > 본엔젤스 파트너스 > 프라이머

투자유치 선호도 : 더벤처스 > 본엔젤스 파트너스 > 프라이머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N=204)	투자유치 선호도 (N=204, 1순위)
1위	본엔젤스 파트너스	더벤처스 (45.1%, 92명)	더벤처스 (17.2%, 35명)
2위	더벤처스	본엔젤스 파트너스 (43.6%, 89명)	본엔젤스 파트너스 (15.7%, 32명)
3위	프라이머	프라이머 (36.3%, 74명)	프라이머 (13.2%, 27명)

Q. 초기투자회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의 이름을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Q. 다음 중 가장 투자 받고 싶은 초기투자회사를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비보조 인지도 - 보기제시 없이 주관식으로 응답

** 보조 인지도 - 객관식 보기 제시 후 중복선택

C-1. 창업자 대상 조사결과

벤처캐피탈 비보조 인지도*와 투자유치 선호도는 모두 소프트뱅크 벤처스

비보조 인지도 : 소프트뱅크 벤처스 > KDB캐피탈 > 스톤브릿지캐피탈

보조 인지도 : 소프트뱅크 벤처스 > 한국투자파트너스 > KTB네트워크

투자유치 선호도 : 소프트뱅크 벤처스 > 한국투자파트너스 > KTB네트워크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N=204)	투자유치 선호도 (N=204, 1순위)
1위	소프트뱅크 벤처스	소프트뱅크 벤처스 (61.3%, 125명)	소프트뱅크 벤처스 (33.8%, 69명)
2위	KDB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 (59.3%, 121명)	한국투자파트너스 (21.1%, 43명)
3위	스톤브릿지캐피탈	KTB네트워크 (43.6%, 89명)	KTB네트워크 (10.8%, 22명)

Q. 벤처캐피탈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의 이름을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Q. 다음 중 가장 투자 받고 싶은 벤처캐피탈을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비보조 인지도 - 보기제시 없이 주관식으로 응답

** 보조 인지도 - 객관식 보기 제시 후 중복선택

조사결과 (2) 대기업 재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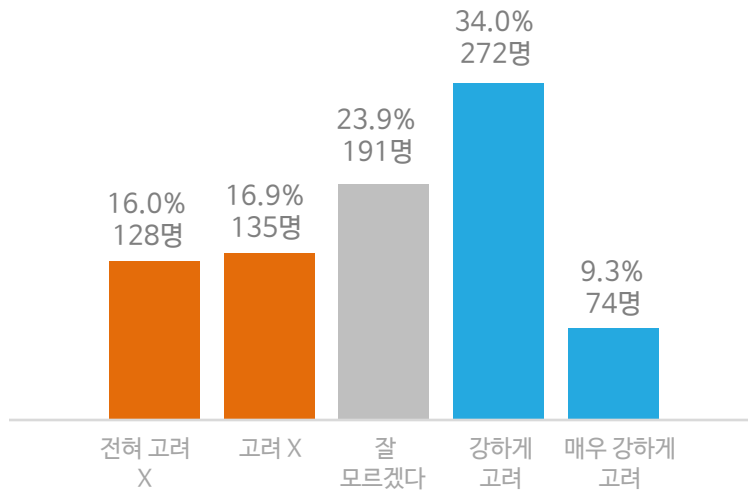
- 규모: 총 800명
- 소속: 10대 그룹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포스코)
- 대상: 사원 ~ 임원
- 연차: 재직 3년 이내 200명, 3년 ~ 7년 이내 300명, 7년 이상 300명

C-2.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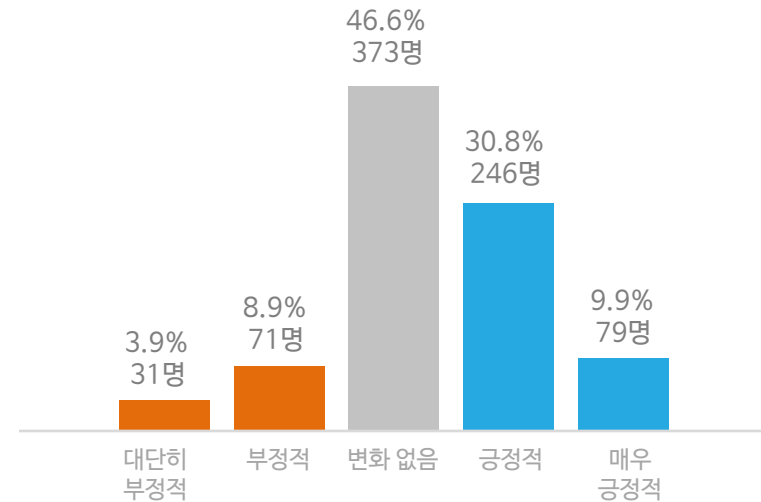
대기업 재직자의 43.3%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함 (Y/Y +3.3%)

직접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수준이(43.3%)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32.9%) 다소 높았으며,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40.7%)이 부정적으로 변한 사람(12.8%)보다 세 배 가량 높았습니다. IT/지식서비스 창업을 고려하는 비율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을 얼마나 고려하는가 (N=800)



창업고려수준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N=800)



Q. 최근 본인이 직접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 방금 전 응답해주신 직접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C-2.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대기업 재직자의 33%가 스타트업 이직을 긍정적으로 고려함 (Y/Y -2%)

대기업 재직자들이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수준이(33%)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20%) 올해도 높았으며,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이(34%) 부정적인 의견보다(13%)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집단을 전체로 보면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31.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 3년차 이하 직장인의 경우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29.5%)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선택해 세대에 따라 의사결정 기준이 상이함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 고려이유 (n=267, 1순위)	부정적 고려이유 (n=162, 1순위)
1위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31.8%, 85명)	낮은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 (53.1%, 86명)
2위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 (27.0%, 72명)	급여 등 복리후생 감소에 대한 걱정 (37.7%, 61명)
3위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 (20.6%, 55명)	부모님 등 가족의 반대 (4.3%, 7명)

Q. 최근 본인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게 된/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개만 골라주십시오.

C-2.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결과

대기업 재직자가 꼽은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으로는 쿠팡(38명),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 (21명), 우버(8명), 직방(8명), 김기사(5명), 요기요(5명) 순서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업을 명시하지 못한 응답자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스타트업의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팡 38명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21명

우버 8명

직방 8명

김기사 5명

요기요 5명

Q.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 혹은 서비스를 한가지만 적어주십시오.

조사결과 (3) 대학교 졸업 예정자

- 규모: 총 200명
- 대상: 대학교 4학년 이상 / 졸업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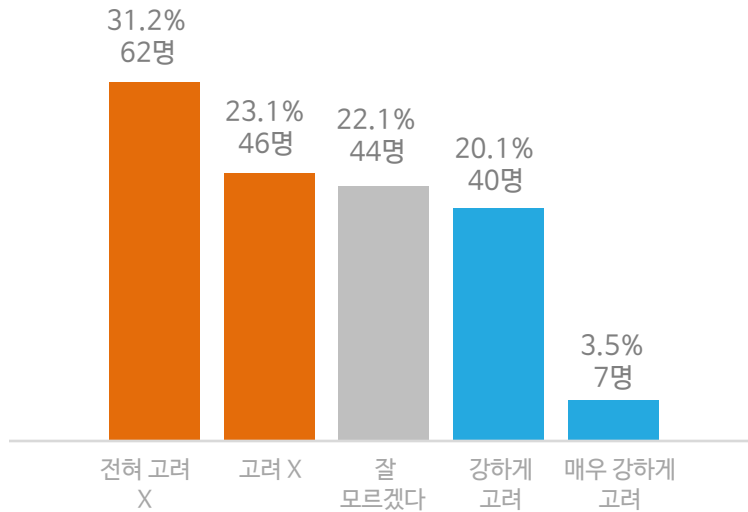


C-3. 대학교 졸업 예정자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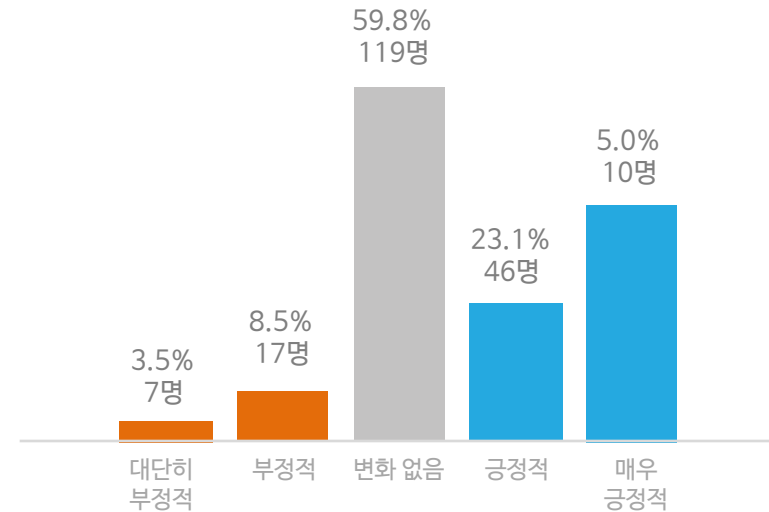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23.6%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함

대학교 졸업 예정자가 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은 대기업 재직자(43.3%)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23.6%)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된 집단(28.1%)이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된 집단(12%)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은 창업에 대한 관심제고의 방증으로 보입니다. IT/지식서비스 창업을 고려하는 비율은 29.8%로 조사되었습니다.

창업을 얼마나 고려하는가 (N=200)



창업고려수준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N=200)



Q. 최근 본인이 직접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 방금 전 응답해주신 직접창업을 고려하는 수준이,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C-3. 대학교 졸업 예정자 대상 조사결과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27.6%가 스타트업 취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함

대학교 졸업 예정자가 스타트업 기업으로 취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수준(27.6%)은 부정적으로 고려하는 수준(15.5%)보다 두 배 가량 높았으며,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한 사람이(26.1%) 부정적인 의견보다(7.5%) 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을, 부정적으로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고용안정성이 꼽혔습니다

	긍정적 고려이유 (n=55)	부정적 고려이유 (n=31)
1위	빠른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 (31.8%, 85명)	낮은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 (53.1%, 86명)
2위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 (27.0%, 72명)	급여 등 복리후생감소에 대한 걱정 (37.7%, 61명)
3위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 (20.6%, 55명)	부모님 등 가족의 반대 (4.3%, 7명)

Q. 최근 본인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취직을 고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Q. 스타트업으로 취직을 고려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게 된/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한 개만 골라주십시오.

C-3. 대학교 졸업 예정자 대상 조사결과

대학교 졸업 예정자가 꼽은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쿠팡과 쏘카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으로는 쿠팡(13명), 쏘카(7명),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5명), 미미박스(3명), 브이터치(3명)순서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업을 명시하지 못한 응답자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스타트업의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쿠팡 13명

쏘카 7명

배달의 민족 5명

미미박스 3명

브이터치 3명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5



리포트 및 관련자료 문의
data@opensurvey.co.kr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4](#)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4
Start-up Trend Report 2014

OPENSURVEY & 

